

운림산방의 토요일그림경매

—전남문화예술재단 김미경 문화사업팀장

글 · 사진 유성문 rotack@lycos.co.kr

첨찰산은 옥주(沃州, 진도의 옛 이름)의 모든 산 중에 조봉(祖峯)이다. 그 아래 동부(洞府)가 넓은데 그곳에 쌍계사가 있고, 쌍계사 남쪽에 운림굴이 있어 그곳에 맑은 집을 짓고 운림산방(雲林山房)이라 이름하였다. 마음이 스스로 기뻐고 내 성품에 맞았다. -허소치 <운림잡지>에서

소치(小癡) 허련(許鍊, 1808~1893)은 49세 때인 1857년(철종 8년)에 고향 진도로 돌아와 첩찰산 쌍계사 밑 물가 양지바른 곳에 초가를 짓고 들어앉았다. 이름 하나 '구름숲(雲林)'이었다. 그때 이미 허소치의 그림은 당대 최고의 경지로 꼽히고 있었으며, 이후로 운림산방은 한국 남종화의 조봉(祖峯)이 되었다. 하지만 운림산방의 경로는 참담했다. 소치의 낙향부터가 스승인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죽음에 잇닿아 있었다. 소치는 초의(草衣, 1786~1866) 선사를 통해 벽지의 궁벽함을 벗어날 수 있었고, 추사에 의해 예술적 지향을 획득할 수 있었다. 더구나 추사는 그의 세속적 후견인이기도 했다. 추사의 영화에 기대 입지를 이룬 소치로서는 스승의 유배와 타계를 거치면서 낙심 낙남(落南)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운림산방에 틀어박혀 화력(畵歷)을 이어가다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긴다.

이 집은 병진년(丙辰年)에 지어 30년이 되었다. 집 사면에는 나무와 꽃들이 무성하다. 모두 내가 먼 곳에서 구해와 기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은 후에는 쓸데 없어질 것이다. 논밭은 이미 부족하여 새 곡식이 날 때까지 양도(糧道)를 이어갈 수 없으니 이 논밭들을 갈아서 어찌 먹고 살겠는가. 한 번에 모두 살 사람이 있으면 팔아치우고 반드시 가족을 거느리고 읍에 가서 살아라. 만이의 자손은 도회에서 사는 것이 좋다. 내 처지로 봐서 만약 벽촌에 떨어져 오래 살았더라면 어찌 득명(得名)하여 지금까지 행세할 수 있었겠는가. 너희들은 깊이 헤아려 처신해야 한다.

소치가 작고한 후 운림산방은 그의 넷째아들 미산(米

山) 허형(許瀼, 1862~1938)에게 상속되었다. 미산은 운림산방을 지키며 아버지의 화업(畵業)을 완성해 나갔지만 56세 때인 1916년 돌연 운림산방을 떠난다.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강진 병영으로 이주한 미산은 참혹한 가난에 시달린다. 그의 아들 남농(南農) 허견(許健, 1907~1987)은 가난 때문에 중학교조차 마치지 못할 지경이었다. 미산 일가는 1923년에 다시 강진을 떠나 목포로 옮겨갔다. 일가가 객지를 전전하는 동안 고향의 운림산방은 점차 쇠락해 마침내는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그나마 오늘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남농이 화업으로 이룬 재력에 힘입어서였다. 그렇지만 소치 가문 3대의 고난과 영화가 담긴 운림산방 앞에서 새겨든 소치의 말은 새삼 의미심장하다.

세인(世人)들은 옛것은 모두 성실하고 지금 것은 허무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지금을 다시 보니 지금도 또한 옛것과 같이 성실하다.

화두로 운림산방의 내력을 길게 늘어놓은 까닭은 그 내력이 토요그림경매를 운영하는 취지와도 결코 무관치 않다고 여겨서다. 전남문화예술재단 남도예술은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토요그림경매는 전남에 거주하는 전업미술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은 물론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진도 운림산방에서 열린다.

“5년 전 처음 토요그림경매를 기획했을 즈음 그 장소로 유통에 보다 유리한 광주 등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남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박준영 도지사께서 운림산방을 고집한 이유가 소치 가문의 화맥



남도예술은행 - 토요그림경매. 행사 중간에 국악공연도 벌어져 흥취를 돋운다.

(畫脈)과 예술혼을 되살리려는 남다른 뜻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통을 바탕으로 윤림산방을 세계적인 예술품 경매장으로 키우려 했던 것이지요.”

현재 ‘남도예술은행 - 토요그림경매’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전남문화예술재단 김미경 문화사업팀장(47)은 사실 전남 사람이 아니다. 진도가 좋아 10여 년 전에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진도로 아예 거처를 옮겨 진도평화제, 진도아리랑축제, 명량대첩축제 등을 기획하고, 행사 시나리오를 작성하는가 하면 진행까지 맡으면서 축제전문가로 활동하게 되고, 급기야 진도군 학예연구사로 근무하면서 『진도 축제식 상장례 민속의 연희성과 스토리텔링』(고려대학교원, 2008)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 진도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진도는 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었어요. 석사 때 국문학과에서 한문학을 전공하고 있던 저에게 진도는 문화재학과에 있는 민속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어 준 곳입니다. 진도에 처음 이사와 윤림산방이 있는 빗기내마을을 지나다가 우연히 보게 된 상여행렬은 제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상여를 메고 나가는 뒤를 하얀 소복을 입은 마을 아짐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북치고, 장구치고... 생전 처음 보는 축제식 상장례 민속이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도의 찻김굿, 다시래기, 만가 등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8년 동안 연고도 없는 진도에 살면서 미친 듯이 초상집을 쫓아 다녔어요. 축제 때는 해설을 맡으면서 진도 상장례를 배워갔고, 2003년 말에는 <진도아리랑 민요창극 - 아리아리랑 날다려가오>라는 극본을 써서 무대 위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소전 손재형(서예가)의 생애를 짚막하게 정리해 소전미술관의 리플릿을 만들기도 하고요. 진도군지에 진도의 문화예술인들을 정리하는 글을 쓰기도 했

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진도와 진도문화를 익히기 시작했지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골이 고향 봉하마을로 돌아가던 지난 해 5월 29일에는 저녁 8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생가 앞에서 추모씻김굿을 진행하기도 했고, 이어 고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國葬)이 있기 하루 전날인 8월 22일에는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의도 생가 앞에서 역시 추모씻김굿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진도씻김굿에서 세계적인 무대공연 예술화의 가능성을 보았고, 실제 <진도씻김굿의 공연예술로서의 가능성 검토>(구비문학연구 23집, 2006), <진도 장례의 무대공연예술로서의 스토리텔링의 실제>(공연문화연구 17집, 2008) 등 여러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토요일경매 일은 맡게 된 것도 진도와의 인연만큼 운명적이었는지도 모른다.

“원래 서울 KBS와 EBS에서 주로 예술가의 휴먼다큐멘터리를 다루는 방송작가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또 큰오빠(김형기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교수, 미디어 아티스트)와의 사연도 있었고요. 큰오빠가 연세대 물리학과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프랑스 파리로 그림을 그리겠다고 유학을 떠나 버렸어요. 그 후 아티스트가 되어 돌아온 큰오빠가 인사동 경인미술관 등에서 전시회를 할 때면 킁킁대며 그림을 날라야 했었지요. 그러면서 여러 인연으로 그림전시회를 자주 가게 되었고, 교육 방송에서 ‘예술의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맡으면서는 화가들의 예술세계와 삶을 취재하면서 많은 예술가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 제가 진도로 와서 소전미술관의 리플릿을 만들

게 되고, 소치의 윤림산방에 대한 글을 쓰게 된 것까지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묘하죠. 진도군 학예연구사를 그만두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마침 나주시에서 제 전공인 스토리텔링 작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남 나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작년까지 나주시 역사문화 큐레이터 겸 스토리텔링 작가로 근무하다가 연초에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 일하게 된 것이지요. 전라남도나 진도와의 인연이 깊

진도씻김굿은 산 자와 죽은 자의 화해의식이다. 매주 토요일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는 토요일속기행이 열려 다양한 진도의 민속공연이 펼쳐진다.





운림산방은 한국 남종화의 성지이다.

다면 아주 깊은 거죠. 현재 진도 접도에 집이 있는데, 집에는 못가도 매주 토요일 운림산방에는 꼭 가야 됩니다. 토요일경매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멘트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 10월 23일, 220회를 맞이한 토요일경매는 평소 미술작품을 접하기 힘든 일반인들에게는 좋은 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상설 운영하고 있는 남도 예술은행은 독창적인 아이템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남문화예술재단 문화사업의 대표주자로 그 몫을 단

단히 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판매실적을 보면 작품수로는 1,497점, 판매액으로는 3억1천만 원이라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처음 경매장을 개설한 1년 동안은 낙찰작이 매주 평균 4점 내외에 머물던 것이 4주년을 맞이한 최근 3개월 동안은 평균 15점이 넘는 좋은 판매실적으로 침체된 지역 미술시장에 행복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남도예술은행 - 토요일경매’는 전국미술공모전 등에서 입상하거나 개인전 등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 전업미술작가들의 작품을 대학교수, 미술평론가, 감정가 등의 심의를 통해 엄선 구입하고 있다. 이 작

품들을 남도예술은행 홈페이지(www.nartbank.co.kr)와 현장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수입은 모두 작품구입비로 재투자된다. 지금까지 한국화, 문인화, 서예부문에서 155명의 작가를 선정하고, 2,299점의 작품을 구입해 놓은 상태이다. 토요일경매 때면 진도 무공해 특산품들을 파는 벼룩시장이 서고, 우수한 화가들이 직접 그림 그리는 것을 볼 수 있는 서화체험장도 열린다. 또한, 경매장에서는 남도의 흥겨운 춤과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국악공연도 펼쳐진다.

“운림산방에 오면 그 소박한 멋에,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시끄러웠던 세상일은 잠시 잊고 오랜만에 삶의 여유를 되찾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꾸어 놓은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유유자적하게 노닐고, 연못 중앙에 예쁘게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섬에는 소치 허련이 정성스럽게 심었다는 백일홍이 붉은 빛을 발하지요. 더군다나 운림산방 소치기념관에서는 소치의 그림 뿐 아니라 5대를 잇는 양천 허씨 집안의 화맥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행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진도에 가서 노래 자랑, 그림 자랑 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그만큼 진도는 예향으로 명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양천 허씨는 몽둥이만 들어도 모두 그림이 된다’는.”

진도로 가는 길은 멀고도 아득하다. 그 산천은 투명하고 바다조차 투명하다. 그 사이 점점이 박혀있는 사람의 삶은 때론 아리랑 가락으로 흐르고 때론 흥주의 붉은 빛으로 넘친다. 그 죽음조차 다시래기와 씻김굿과 만가로 떠돈다. 그 들에는 들노래가 아스라하고 바닷가에는 강강술래가 애처롭다. 영등이면 바다는 그 투명한 속살을



진도의 바다. 무엇을 더 이르랴.

드러내 스스로 길을 낸다. 진돗개와 구기자와 미역과... 진도, 그 보배섬 한복판에 운림산방이 있다. 그 산방은 매주 토요일이면 남도의 애잔한 빛으로 열린다. 그 빛은 첨찰산의 음영을 더하며 다시 투명한 진도의 산하로 번져간다.(참고·인용: 김훈 『원형의 섬 진도』)

글·사진 유성문 | <희망세상> 독자편집위원